

주민의 인식과 태도로 본 도시 공동체의 현황과 과제*

- 대구 동구 안심지역을 사례로 -

이 영 아**

Features and Issues of an Urban Community by Analysing Residents' Awareness and Attitude*

Lee, Young A**

요약: 최근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시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 공동체의 이상적·대안적 성격에 관심이 있었으나, 도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의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지역에서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 공동체의 현황과 과제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는 중산층, 고학력,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로 참여하였으며,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맺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참여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의 특정 계층 지향성은 다른 주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이는 참여 제한으로 이어지며 배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계층 간 보다 개방적인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주요어: 도시 공동체, 연대감, 공공성, 참여, 사회적 배제

Abstract: Urban communities have been recently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idea in the field of urban regeneration, social economy and so on. Urban communitie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n ideal, but the way urban communities work in reality also should be analysed.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hat urban communities really mean and who are involved in urban communities. The paper explores the features and issues of urban communities by surveying residents in Ansim area, Dong-gu, Daegu city. The paper analyses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features: residents' socio-economic features, residence features, social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urs and the sense of community. The survey outcome shows that middle income, higher educated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 complex are relatively more involved in community activities. Moreover, those who have more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urs have participated in community activities more than those who do not have any. As a consequence, this paper carefully states that the urban community is middle class-oriented and such feature could cause other residents' limited opportunities to access information about their own community and lead to social ex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urban community groups need 'soft solidarity' between social classes.

Key Words: urban community, sense of solidarity, publicity, participation, social exclusion

1. 서론

주택 공급자 위주의 도시개발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주민이 주체가 된 도시 정비 방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도시 공동체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6년에 창립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를 비롯하여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이 생겨나면서(진영환 등, 2007), 도시 공동체의 역할 및 성격에 관한 논의가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재생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주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고(이영아, 2009; 박인권, 2012), 사회적 경제의 기반으로 도시 공동체의 역할이 논의되기도 했다(고형면, 2012). 이러한 논의에서 도시 공동체 역량강화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고 여겨졌다. 또한 경제 및 복지 분야에서도 비영리 민간 부문으로서 도시 공동체가 대안적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시행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도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신입교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vi.)(yalee@daegu.ac.kr)

시공동체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도시 공동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평등과 경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안적 세력이자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주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도시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우수 사례 소개는 많으나, 현실에서의 도시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따라서 도시 공동체 중 최근 동네 단위에서 각종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공동체적 특성과 그들의 지역 단체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 공동체의 현황과 과제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 2장에서는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조사 지역에 대한 개관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4장부터는 동네의 공동체 단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동네 차원에서 주거환경 및 인간관계,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도시 공동체 운동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2. 도시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동체 정의

1980년대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 이후¹⁾ 민주적 시민사회 개념으로서 공동체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 논쟁을 거치면서 노스탈지아로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념으로 재해석되었고, 점차 도시사회의 규범적 사회관계의 형태로 공동체가 인식되었다.

현대 사회 ‘공동체’는 동네부터 세계, 심지어 가상공간에서까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엄밀한 학문적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인식된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형태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말이 쓰이는 의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윌리엄스(Williams, 1976, 65~66)는 14세기

부터 사용된 공동체 개념을 정리하면서 역사적으로 공동체란 늘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말(warmly persuasive word)’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선미(2008)는 근대 사회에서 공동체 논의는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활발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집합적으로 상상되고 추구되는 미래 비전과 이상을 담는, 현실에 대한 반명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추상적 의미의 ‘공동체’ 정의는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큰 힘이 없다. 공동체가 늘 이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시대를 초월한 일반적인 정의보다 오히려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그 공동체의 이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까?

한국 사회의 공동체를 정의하고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를 정의할 때 가장 의미 있게 쓰이는 말은 ‘연대감’이다(김찬동, 2013; 서재호, 2013; 나중석, 2013; 정성훈, 2013). 연대감²⁾은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전체의 중간적 위치를 가지는 공동체를 성립시킬 수 있는 핵심적 성격이다. 연대감이 기반이 된 진정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세심히 배려하는(deliberative) 민주적인’ 모습을 갖게 되며(신명호, 2003),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이 희생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의 공동체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은 ‘공공성(publicity)’ 혹은 ‘정의(justice)’이다(최병두, 2003; 정성훈, 2013). 공동체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집단과 차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공공성이란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이해가 사회에서 추구하는 공동의 선(the common good)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는 공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의도적 공동체’라고 규정되기도 한다(신명호, 2003).

세 번째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 성격을 표현하는 개념은 ‘참여’이다(최병두, 2003; Tam, 1998). 위의 두 가지 개념이 공동체를 정의하는 내용 및 가

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참여는 그러한 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을 의미한다. 참여를 통해 개인과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유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Etzioni, 1996) 참여는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실천전략이며 공동체 운동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2) 도시 공동체 의미와 종류

도시 공동체는 위에서 설명한 공동체 성격에 공간 개념이 더해진 것이다. 원래 공동체 개념에는 대면접촉이 가능한 공간적 규모인 지역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공동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공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 맥락 속에서 공동체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사회학적 개념에 공간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지역’에 살면서 개인의 안정성과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최병두, 2006).

전통적인 공동체 공간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농촌과 동일시되었으며 전통적인 공동체 공간은 근대 산업사회의 특성이 공간에 집약적으로 나타난 도시와는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³⁾. 그러나 산업사회의 표상인 도시 공간에서도 전통적인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창조도시론(creative cities),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관련된 논의가 등장하면서(최병두, 2006) 도시 공동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이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 공동체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도시화의 둔화, 국가 차원의 경제 성장률 둔화 및 국가 재정 상태의 악화, 동시에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 등과 같은 거시적 환경변화(박인권, 2012) 때문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산업사회의 결과물인 도시에서의 생활에 피곤함을 느낀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반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정규호, 2012).

현대의 도시 공동체 활동에는 생산-소비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주민의 삶이 녹아있는 일상생활 공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

상생활에 주목하는 도시 공동체 활동은 주거(세입자 운동), 환경(녹색아파트 운동), 경제(생활협동조합), 문화(지역축제, 대안학교), 자치(정치), 복지(자활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조명래, 2003) 각 영역에서 더 많은 도시 공동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중석(2013)은 민주주의, 대안경제, 거버넌스 등 정치적, 경제적 부문에서 마을 공동체 요소를 다루고 있고, 하승우(2013)는 경제 공동체인 협동조합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도시 공동체 원칙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도시 공동체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대’라는 본래적 특성에 기반하여 도시에서 자본에 의해 잠식될 위기에 놓인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실천)’를 통해,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도시 공동체의 한계와 과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도시 공동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산업사회를 주도하는 근대적 이념에 대항하는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으나, 도시 공동체 논의가 실제 현대 도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도시 공동체가 목표로 추구하는 ‘좋은 것’에 대한 추상적 성격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도구화 가능성(박주형, 2013), 공동선(the common good)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같은 공동체의 목표 및 방향 정립에서 오는 한계보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가 가지는 본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연대감과 관련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연대감은 분명 긍정적인 힘을 가지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감정이기도 하다. 연대감은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의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동질적이라는 것은 관심사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관심사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클 경우 구성원 간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감 형성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구성원 간 비동질성의 문제를 차이의 결과로 인

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동질감에 기반한 연대감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집단에게는 유용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아니라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한 배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들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과 단절될 가능성을 줄이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 접근의 기회가 높아지고, 참여의 기회도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그 지역을 그들의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동네에서 정보 제공자로서의 이웃과 사회적 관계가 적은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원인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신옥, 2006). 극단적인 공동체의 배타성은 동네의 안전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빗장 동네(gated community)⁴⁾ 공급 및 운영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도시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특성인 연대감으로 인해 오히려 정보 접근의 제한, 참여의 제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 결국 불평등하고 단절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동일한 정체성에 기반한 강한 연대가 아니라 다른 집단에 대한 개방성이 확보된 ‘느슨한 연대(soft solidarity)’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현대 도시 지역에서의 도시공

동체 운동은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교류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느슨한 연대를 맺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특정 사회관계가 체현된 공간으로서 장소(동네)는 동질성 및 폐쇄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사회관계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다는 도린 메시(1994)의 논의에서 표현된 ‘사회관계 네트워크’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개방적 연대를 가진 현대 사회의 도시 공동체 특성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설계 및 조사 지역 개관

도시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위해, 다음 장부터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동네에서 이웃과 맺는 관계나 공동체 특성이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주민의 특성을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조사 및 분석 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참여와 주민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일주일 간 이루어졌으며, 대구 동구 안심 1동, 2동, 3, 4동에 거주하는 주민

표 1. 조사 세부 항목

항 목		구 분
사회경제적 특성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500만원 초과
	직업	농업 및 제조업/사무직/서비스업/주부/무직/자영업/학생
	연령	20대 이하/30대/40대/50대/60대 이상
	학력	초졸 및 중졸/고졸/대졸/대학원 졸
주거 특성	주택유형	아파트/다세대/단독
	점유형태	자가/전세/월세
	거주기간	2년 미만/2-3년/3-5년/5-10년/10-15년/15년 초과
공동체 특성	사회관계	전화 및 문자하기/소소한 일 함께 하기/경조사 챙기기/잘못 목인하기/ 함께 행동하기/토론하기/생각 바꾸기/돈 빌리기
	동네 인식	자긍심/소속감/편안함/주인의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동구 행정동별 2012년 인구수를 고려하여 동별로 표본수를 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면 조사 방식과 설문지 배포 및 회수방식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도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표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개별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 환경 특성과 참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χ^2)을 실시하였다. 공동체 특성 중 사회관계와 참여와의 관계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동네 인식과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대상 지역 개관

(1) 조사 대상지역 개관

안심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남쪽 끝에 위치

해 있다. 동구는 경상북도 경산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대구시의 변두리 지역이다. 1960~70년대 성장하는 대도시의 배후지였던 안심지역에는 창고 및 물류센터, 공항, 저탄장 등 기반시설과 시멘트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러다 점차 대구시의 시가지 확장으로 이곳에 주택이 늘어나면서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주거지역이 되었다. 낙후된 대도시 변두리였던 이 지역에 2000년대 이르러 새로운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이 잇따라 조성됨으로써 공장 및 공항 주변의 노후한 구시가지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신시가지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경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모여 살게 되었다.

동구의 인구는 2012년 현재 총 343,644명(136,479세대)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08년 이후 늘고 있는데, 이는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 및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유입이 늘어난



그림 1. 안심지역 위치와 시가지 전경

표 2. 안심 지역 인구현황(2012)

구 분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안심지역	동구 전체
인구수(명,%)		43,611(12.7)	10,952(3.2)	49,802(14.5)	104,365(30.4)	343,644(100)
세대수(가구,%)		17,434(12.8)	4,192(3.1)	17,133(12.6)	38,759(28.4)	136,479(100)
수급자수(%)		2,511(29.2)	158(1.8)	537 (6.2)	3,206(37.3)	8,604(100)
한부모 가족	명(%)	1,069(20.2)	164(3.1)	379 (7.2)	1,612(30.5)	5,284(100)
	가구(%)	448(22.3)	61(3.2)	144 (7.2)	653(32.5)	2,008(100)

출처: 대구광역시 동구청(2013) 통계연보

주민의 인식과 태도로 본 도시 공동체의 현황과 과제

결과로 파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와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비율은 동구 전체에서 안심1동이 상대적으로 높다.

(2) 조사 대상 단체 특성

설문조사에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은 지역 단체는 <표 3>과 같다. 지역 단체 선정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지역 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동구행복네트워크 대표를 통해 소개를 받았고 해당 지역 단체 대표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이 단체들은 지역에서 공동체 운동 및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들로, 이중 2003년에 문을 연 한사랑 어린이집이 가장 오래 되었다. 그 다음으로 아띠 어린이도서관이 2008년에 개관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을 토대로 2010년 이후 여러 단체와 협동

조합이 이 지역에 생겨났다. 이 단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도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업의 내용은 다양하나 유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들로 인식되고 있다.

4. 참여 의사가 높은 지역 단체

설문조사 결과 안심지역은 이러한 지역 단체 활동에 대해 참여의사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단체 중 하나라도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08명(77%)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단체 수는 총 11개 중 4.1개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에 대한 응답율이 높은 이유는 첫째,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 역사가

표 3. 안심지역 주민 단체 주요 사업 및 회원수

단체명	주요 사업	회원 수*
공터 (주택 협동조합)	- 부동산 임대업 분야 협동조합으로 조합 명의의 건물 및 공용주택 건축 및 임대	조합원 약50인
대동계	- 계원 간 소액 신용대출 - 회비의 일부로 지역봉사활동 추진	회원 35~37인
땅이야기 (안심생협)	-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형 가게 (수퍼마켓)	조합원 370인
동구행복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 먹거리 사업: 웰도락을 통한 건강한 급식, 도시락, 뷔페사업 - 문화사업: 율하 한마음축제, 안심청소년축제 등 주민문화교육사업	직원 8인
등지 (방과후 협동조합)	- 공부가 아닌 놀이로 채워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 조합원 심리상담	이사 7인 학생 4인
빅헨즈 (사회적 협동조합)	- 에이즈 예방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에이즈 예방 교육 - 소셜카페 빅헨즈 운영	직원 5명 후원자 8명
사람이야기 (마을카페)	-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 - 매월 마을 음악회 개최	대표 1인 직원 4인
아띠 (어린이 도서관)	- 걸어서 10분 내 있는 주민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 - 도서대출, 부모와 어린이 강좌, 동아리 활동, 어린이 기자단 운영	운영위 10인 사서 35인 회원 400인
율하 아나바다 장터	- 나눔과 문화 공유의 장 - 매월 둘째 주 알뜰 아나바다 개최	운영위 6인
한사랑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 어린이집운영: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지향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직원 26인 학생 60인
행복한 어린이 공부방 (LH 지원사업)	- 율하 5단지 초등학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 작은 도서관, 마을 주민대상 강좌 운영	학생 15인 교사 2인 운영위 5~7인

* 회원 수, 직원 수, 조합원 수 등은 2013년 8~9월 인터뷰 내용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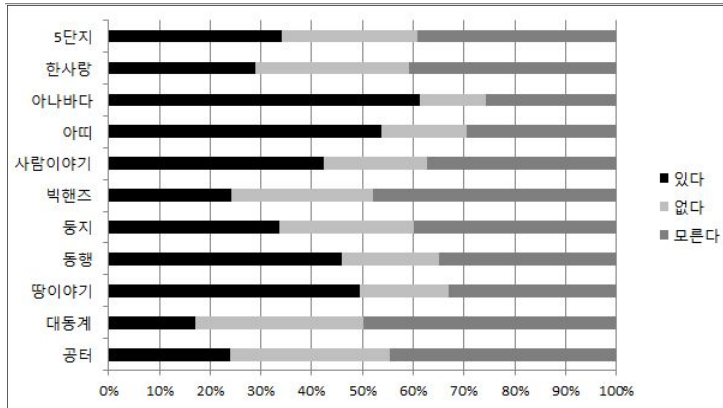


그림 2. 주민들의 지역 단체별 참여 의사

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체는 중고장터, 어린이 도서관, 생활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관심사와 밀접한 일상생활 활동을 다루는 단체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은 자신의 수요와 일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10년이 넘어 많은 주민들이 이들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고, 둘째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단체가 여럿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5.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참여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참여와의 관계에 대

표 4.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참여의사 유무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없음	있음		
직업	농업 및 제조업	1 (5.9%)	16 (94.1%)	17 (100%)	$\chi^2=30.237$ (df=6, p<0.001)
	사무직	10 (17.9%)	46 (82.1%)	56 (100%)	
	서비스업	17 (26.2%)	48 (73.8%)	65 (100%)	
	자영업	26 (36.6%)	45 (63.4%)	71 (100%)	
	주부	15 (11.3%)	118 (88.7%)	133 (100%)	
	무직	9 (32.1%)	19 (67.9%)	28 (100%)	
	학생	8 (50.0%)	8 (50.0%)	16 (100%)	
전체	86 (22.3%)	300 (77.7%)	386 (100%)		
월소득	100만원 이하	18 (30.6%)	32 (64.0%)	50 (100%)	$\chi^2=9.727$ (df=5, p<0.1)
	200만원 이하	21 (28.4%)	53 (71.6%)	74 (100%)	
	300만원 이하	20 (22.2%)	70 (77.8%)	90 (100%)	
	400만원 이하	17 (18.9%)	73 (81.1%)	90 (100%)	
	500만원 이하	8 (13.8%)	50 (86.2%)	58 (100%)	
	500만원 초과	8 (21.1%)	30 (78.9%)	38 (100%)	
전체	92 (23.0%)	308 (77.0%)	400 (100%)		
연령	20대 이하	14 (35.9%)	25 (64.1%)	39 (100%)	$\chi^2=9.157$ (df=4, p<0.1)
	30대	15 (14.6%)	88 (85.4%)	103 (100%)	
	40대	32 (21.8%)	115 (78.2%)	147 (100%)	
	50대	20 (26.7%)	55 (73.3%)	75 (100%)	
	60대 이상	10 (28.6%)	25 (71.4%)	35 (100%)	
전체	91 (22.8%)	308 (77.2%)	399 (100%)		
학력	중졸 이하	10 (33.3%)	20 (66.7%)	30 (100%)	$\chi^2=10.625$ (df=3, p<0.05)
	고졸	39 (31.0%)	87 (69.0%)	126 (100%)	
	대졸	41 (18.2%)	184 (81.8%)	225 (100%)	
	대학원졸	2 (11.1%)	16 (89.9%)	18 (100%)	
	전체	92 (23.1%)	307 (76.9%)	399 (100%)	

해서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동네 조직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하 참여)’는 응답은 주민들의 학력 및 소득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가 낮아지고 있다(df=4, p<.05). 연령은 30~40대의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300~500만원 사이에서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참여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100만원 이하로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참여 역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령과 소득은 각각 90% 신뢰수준에서 참여와 관계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주민들의 직업별로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농업,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와 주부였다. 무직, 자영업, 학생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df=6, p<.001). 주부의 참여가 높은 것은 일상생활 공간으로 지역을 가장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직이나 학생의 경우는 구직이나 학업 등 다른 주제에 관심이 클 것이기 때문에 참여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농업·제조업, 사무직의 참여가 높고 자영업의 참여가 낮은 것은 흥미로운데, 이

는 자영업은 농업, 제조업, 사무직에 비해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가 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고학력, 중산층 등 이 지역에서 참여가 특정 계층 지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계층 지향적 공동체는 저학력이고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줄어든게 할 우려가 있다.

6. 주거 환경과 참여

주거 환경과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표 5)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chi^2=7.270$, df=2, p<.05).

아파트는 단독에 비해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비공동체적, 기능주의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는 단지 내 복지시설, 어린이집, 휴식 공간, 공원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단독주택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간 대면접촉의 기회가 넓어지게 한다. 또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주거 문화가 유사한 사

표 5. 주거 환경 특성과 참여

		참여의사 유무		전체	카이제곱 검증
		없음	있음		
점유형태	자가	58 (20.9%)	220 (79.1%)	278 (100%)	$\chi^2=4.694$ (df=2, p<0.1)
	전세	18 (23.4%)	59 (76.6%)	77 (100%)	
	월세	13 (37.1%)	22 (62.9%)	35 (100%)	
	전체	89 (22.8%)	301 (77.2%)	390 (100%)	
주거유형	아파트	47 (19.1%)	199 (80.9%)	246 (100%)	$\chi^2=7.270$ (df=2, p<0.05)
	다세대(연립)	16 (21.6%)	58 (78.4%)	74 (100%)	
	단독	24 (34.3%)	46 (65.7%)	70 (100%)	
	전체	87 (22.3%)	303 (77.7%)	390 (100%)	
거주기간	2년 미만	5 (25.0%)	15 (75.0%)	20 (100%)	$\chi^2=3.139$ (df=5, p=0.679)
	2~3년	7 (14.0%)	43 (86.0%)	50 (100%)	
	3~5년	14 (21.5%)	51 (78.5%)	65 (100%)	
	5~10년	22 (25.0%)	66 (75.0%)	88 (100%)	
	10~15년	15 (23.1%)	50 (76.9%)	65 (100%)	
	15년 초과	29 (25.9%)	83 (74.1%)	112 (100%)	
	전체	92 (23.0%)	308 (77.0%)	400 (100%)	

람들이 모여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감 형성에 유리하다.

조사 단체 중 중고 장터인 ‘아나바다’의 경우 이사를 온 30대 젊은 가정주부가 자녀가 자라서 못 쓰게 된 유아용품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단지에 광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단지 안에 입주한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에 유사한 고민을 하는 주부들을 알게 되어 이들과 물물교환을 하다가 점차 지역단위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이 사례는 동질적 연대가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반면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주택 점유형태별 참여의사를 보면, 자가 소유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월세로 거주하게 되면 지역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참여의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chi^2=4.694$, $df=2$).

거주기간의 경우, 2~3년 정도 거주한 경우 참여의사가 78.5%로 가장 높았으며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74.1%로 가장 낮아 상식과는 약간 달랐으나 이는 동구 지역에 최근 유입된 신사가지 주민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거주기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7. 공동체 특성과 참여

지역 공동체 특성과 참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체 특성을 이웃과 맺는 관계 및 지역과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소속감, 자긍심 등 동네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사회적 관계와 참여

도시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특성으로서 연대감을 알아보기 위해 이웃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의 수와 참여하는 단체 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6>에 제시된 일상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날마다 전화나 문자로 소통을 하는 이웃’이 있는 경우가 400명 중 344명(8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안 경조사를 챙기는 이웃’이 있다는 비율(83.7%)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만나서 소소한 일을 함께 하는 이웃’이 있다와 ‘정도가 크지 않다면 잘못도 목인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비율(82.5%)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함께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웃이 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활동이 아닌 공공의 이해를 위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토론, 이로 인한 변화와 같은

표 6. 안심지역 주민의 이웃과의 관계

활동구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명	%
날마다 전화나 문자로 대화한다.	344	86.2
집안 경조사를 챙긴다.	333	83.7
취미활동이나 장보기, 커피마시기 등 소소한 일을 만나서 같이 한다.	330	82.5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목인할 수도 있다.	329	82.5
그 사람을 따라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300	75.0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할 수 있다.	286	71.5
그 사람의 권유라면 내 생각, 신념, 행동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247	61.9
급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210	52.9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은 함께 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웃과 함께 하기 가장 힘든 행동은 돈 거래였다.

이러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와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scheffe)을 실시하였다(표7 참조). 이웃과 맺는 모든 활동의 경우에, 같이 할 수 있

는 이웃 수가 많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화 및 문자하기(F=5.98, p<0.05)는 그럴 사람이 없는 경우와 1인 이상이라도 있는 것 사이에 참여 단체 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소소한 일 함께 하기는 3인 이상인 경우와 그럴 사람이 없는 것 사이에 참여 단체 수 차이가 유의미했다(F=7.74, p<.001).

표 7. 이웃과의 사회관계와 참여 단체 수와의 관계 (ANOVA 분석)

변 수	N	평균 ^{주)}	표준편차	분산분석 검증	사후검증
권유로 생각변화 가능	없다	153	3.28	F=7.427***	a<b,d
	1~2인	146	4.63		
	3~5인	70	4.11		
	6인 이상	31	6.03		
	합계	400	4.13		
시사토론	없다	114	2.96	F=8.504***	a<c,d
	1~2인	129	4.12		
	3~5인	107	4.77		
	6인 이상	50	5.50		
	합계	400	4.13		
함께 행동하기	없다	100	2.70	F=14.377***	a<b,c<d
	1~2인	159	4.13		
	3~5인	94	4.48		
	6인 이상	47	6.49		
	합계	400	4.13		
잘못 묵인	없다	71	3.24	F=6.138***	a,b,c<d
	1~2인	186	4.10		
	3~5인	98	3.98		
	6인 이상	45	6.00		
	합계	400	4.13		
경조사 챙기기	없다	67	3.10	F=3.637**	a<d
	1~2인	129	4.53		
	3~5인	104	3.80		
	6인 이상	100	4.66		
	합계	400	4.13		
소소한 일 함께 하기	없다	70	2.80	F=7.737***	a<c,d b<d
	1~2인	132	4.03		
	3~5인	152	4.31		
	6인 이상	46	5.87		
	합계	400	4.13		
전화 및 문자	없다	55	2.56	F=5.984**	a<b,c,d
	1~2인	164	4.18		
	3~5인	120	4.27		
	6인 이상	60	5.23		
	합계	400	4.13		

p<0.05, *p<0.001, a=없다, b=1~2인, c=3~5인, d=6인 이상

주)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수 평균임

경조사 챙기기는 6인 이상인 경우와 하나도 없는 경우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F=3.64, p<.05$). 잘못을 목인하는 이웃이 6인 이상인 경우는 5인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와 참여 단체 수 평균의 차이가 의미 있었다($F=6.14, p<.001$). 동네 문제에 대해서 함께 활동하겠다는 이웃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이웃이 6인 이상으로 많은 경우는 1~5인의 이웃이 있는 경우와 평균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4.38, p<.001$).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없는 경우에 비해 3인 이상인 경우에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8.50, p<.001$),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그런 이웃이 없는 경우에 참여 단체 수가 가장 낮았으며, 1~2인 이상인 경우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43, p<.001$).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여에 있어서 이웃과 맺는 사회관계의 중요성이다. 함께하는 활동 대부분의 경우 같이 할 수 있는 이웃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참여할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참여에 있어서 교류하는 이웃 한 명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지역 단체 사업의 비참여자들은 ‘정보가 없어서(27%)’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정보 부족의 문제는 동네 일에 대해 이야기할 이웃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즉 정보 접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볼 때 정보 접근성의 문제는 소수의 이웃과 느슨하고 가벼운 사회적 관계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네에 대한 인식과 참여

공동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네에 대한 인식과 참여와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자신의 동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동네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 편안함, 동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려하였으며, 이들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긍심과 편안함 간에는 0.62로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p<.01$)가 나타났으며, 소속감과 자긍심(0.54, $p<.01$), 편안함과 주인의식(0.51, $p<.01$)로 모두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핵심 연구 질문인 지역에 있는 공동체 단체에 대한 참여 의사와 동네에 대한 인식인 자긍심,

지역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응답자(명)	비율(%)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53	27.0
시간이 없어서	47	24.0
관심이 없어서	33	16.8
필요 없어서	30	15.3
직장 때문에	18	9.2
나이가 들어서, 귀찮아서, 자신이 없어서	8	4.0
기타(친밀감 부재, 다른 곳에서 활동 중)	7	3.5

표 9. 동네에 대한 인식과 참여와의 상관관계 분석

	참여의사	자긍심	소속감	편안함	주인의식
참여의사	1.00				
자긍심	.22**	1.00			
소속감	.15**	.54**	1.00		
편안함	.20**	.62**	.60**	1.00	
주인의식	.28**	.32**	.41**	.51**	1.00

** $p<.01$

소속감, 편안함, 주인의식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9).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동네에서 느끼는 자긍심이나 소속감, 편안함, 자긍심, 주인의식과 같은 동네에 대한 인식은 참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8. 결 론

본 논문은 도시 공동체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 환경 특성 및 공동체 특성과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은 고학력, 중산층의 아파트 거주자로서 특정 계층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참여 단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 고학력 주민의 수요가 반영된 활동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저소득의 학력이 낮은 주민들은 도시 공동체 활동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고른 참여를 위해서는 특정 계층의 관심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주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들의 수요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현재 참여하는 계층의 수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동네에서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 이웃뿐 아니라 그저 소소한 일상 생활 활동이라도 같이 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동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전화를 하거나 소소한 일을 함께 할 친한 이웃이 한 명 있다'는 것은 느슨하고 가벼운 연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벼운 연대를 통해 사람들은 해당 지역을 더 이상 이질적인 곳이 아닌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단체에서는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이러한 가벼운 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즐겁고 개방적인 사업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그저 함께 모여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심지역의 경우에는 매년 열리는 동네축제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매월 마을카페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날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소리는 누구나 쉽게 마을 카페에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소속감, 안정감, 주인의식 등은 주민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연대감은 보다 현실적인 수요 충족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그러한 연대감이 굳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정이 생길 만큼 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필요하면 언제든 이사를 하고 여러 자기 일을 중첩적으로 수행하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에게 한 동네에 대한 애정을 너무 깊이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네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까운 이웃과 소소한 생활을 한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도시 공동체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도시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시 공동체의 특성(연대감, 공공성, 참여) 중 연대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대감이 공공의 이해라는 가치와 연계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주

- 1) 이 논쟁에 대해서는 멀홀 & 스유프트(Mulhall S. and A. Swift, 2003)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참조하기 바람
- 2) 유대감, 공동의식, 상호영향의식, 소속감, 친밀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3) 톤니스(Tönnies, 2011)의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및

뒤르켐(Duckheim, 1964)의 유기적 연대와 기계적 연대 구분은 농촌 공간과 도시 공간에서 주로 작동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빗장도시(gated community)란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어 출입이 제한 주거 단지를 의미하며(Blakely and Synder, 1999), 특정 계층의 폐쇄적 영역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헌

강신욱, 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9-32.

고형면, 2012,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공동체 지향적 성장 역량: Q방법에 의한 유형화와 사례 비교, 보건사회연구, 2012, 32(3), 159-190.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나종석, 2013,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마을 인문학'의 구체화를 향해, 사회와 철학, 26, 1-32.

대구광역시, 2010,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대구광역시 동구청, 2012, 통계연보.

대구광역시, 2013,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박인권, 2012,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 전략,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24(4), 1-26.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 5-43.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 인식좌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설한, 2003, 공동체주의: 협동, 책임, 참여의 정치 사회학, 도시공동체론,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17-56, 한울아카데미, 서울.

신명호, 2003,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공동체론,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116-154, 한울아카데미, 서울.

이선미, 2008,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 42(5), 101-139.

이영아, 2009, 지역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요소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61-272.

정규호, 2012, 한국 도시공동체 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55(2), 7-34.

정성훈, 2013, 도시공동체의 친밀성과 공공성, 철학사상, 49, 311-340.

조명래, 2003, 지역사회에의 도전: 도시공동체의 등장과 활성화,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83-115, 한울아카데미, 서울.

조영달, 김해성 옮김, 200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한울아카데미, 서울(Mulhall S. and A. Swift, 1992, Liberals and Communitarians).

진영환, 류승한, 조판기, 김진범, 권영상, 정윤희, 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편, 국토연구원, 안양.

최병두, 2003,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운동,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57-82, 한울아카데미, 서울.

최병두, 2006,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지리학연구, 40(4), 513-528.

하승우, 2013, 협동조합운동의 흐름과 비판적 점검, 문학과과학, 73, 91-109.

Blakely E. and M. Synder, 1999, *Fortress America: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uckheim, E., 1964,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he Free Press, IL, 임희섭 옮김, 1982, 사회분업론, 삼성출판사, 서울.

Etzioni, A., 1996, The responsive community: a communitarian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1.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Tam, H., 1998, *Communitarianism: A New Agenda for Politics and Citizenship*, McMillan Press, London.

Tönnies, F., 2011, *Community and Civil Society*, Translated by C. P. Loomis, Dover Publications, New York.

Williams, R., 1976, *Keywords*, Croom Helm, London.

(접수: 2014.07.24, 수정: 2014.08.15, 채택: 2014.08.21)